

올해 연등회에서 한마음선원은 봉축장엄등 '만공의 피리 소리 등(燈)'을 선보였다. '만공의 피리 소리 등'은 깨달음 여정을 표현한 심우도를 구현했다.

# 자비 넘치는 불국정토 이루다








## 불교문화 체험 '풍성'
## 참여 외국인 "원더풀"

### 연등회 전통문화마당 인기 만점

한국 불교문화 체험과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거리 축제가 서울 종로 일원에서 펼쳐졌다.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는 4월 27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전통문화마당을 개최했다. 80여 단체에서 △선명상 △전통 △나눔 △NGO △먹거리 △국제 △청년MZ 등 7개 주제에 따라 130여 개 부스를 마련, 한국불교 체험의 장을 선보였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연등회의 위상을 보여주듯 올해 전통문화마당에는 외국인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다. 특히 연꽃등 만들기와 사찰음식을 맛볼 수 있는 부스에는 외국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조계사 옆 우정총국 마당에서 국제포교사회가 운영한 외국인 등만들기 부스에서는 외국인 210명이 연꽃등을 직접 만들며 한국불교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국 출신 다니엘 씨는 "어제 저녁 연등행렬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아 오늘 전통문화마당에도 참여하게 됐다"면서 "계획해 놓은 다른 일정이 있었지만 사찰음식 맛보기 등 체험해보고 싶은 부스가 너무 많아 취소해야할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먹거리마당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로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화엄사버거 부스에는 비건 음식인 '화엄사 극락버거' '극락 더블버거' 등을 맛보려는 이들로 가득 찼고, 극락솜사탕 부스는 50m가 넘는 줄이 늘어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청년MZ마당은 젊음의 패기가 가득했다. 특히 템플스테이 부스는 사찰을 배경으로 한 인생네컷 스테커 사진으로 인기를 끌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30여개 부스를 하나 하나 방문해 격려했다.

임은호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현존 最古사찰 지장도량

삼랑성 傳燈寺

조 실 정암 세연
회 주 학농 장윤 주 지 여암

정기 법회
초하루 법회
지장재일 – 합동천도재 및 만년위패 봉안식
관음재일 – 예경문 독송
일요법회, 어린이법회

전등사 유튜브 '전등사TV' 운영
구독과 알림설정으로 어디서든
온라인 법회에 동참이 가능합니다.



마음의 등불 대한불교조계종 전등사 주소: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로 37-41 홈페이지: jeondeungsa.org 이메일: 9370125@daum.net TEL: 032)937-0125 FAX:032)232-5450